http://dx.doi.org/10.20880/kler.2019.54.3.5

표현 의도를 탐구하는 어휘 교육의 설계 요소 탐색

—타당한 어휘 사용 교육의 체계화를 위하여

김규훈 대구대학교 창조융합학부 조교수

I.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II. '표현 의도 탐구'의 실체와 타당한 어휘 사용 교육의 관련성
III. 이론 요소: '인지문법' 기반 '틀과 은유' 활용 어휘 교육
IV. 실천 요소: '인지 중심적 텍스트'와 '어휘 타당성 탐구 활동'
V. 연구의 요약과 한계

I.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이 연구는 표현 의도를 탐구하는 어휘 교육의 설계 요소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표현자는 텍스트를 생산할 때 텍스트의 유형과 같은 구조적 지식과 함께 텍스트의 내용적 실체인 어휘를 선택한다. 어휘 교육의 관점에서 표현자에 의해 선택된 어휘를 탐구하는 일은 어휘가 배태하는 세계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인식 교육으로서 가치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텍스트에 사용된 어휘에서 표현 의도를 탐구하여 궁극적으로 비판적 어휘 인식력을 함양할 수 있는 어휘 교육의 방안을 구상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1)]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은 텍스트를 구성하는 어휘에서부터 출발한다(박수자, 2006: 182). 그만큼 텍스트에 사용된 어휘를 탐구하는 일은 텍스트의

1) 이 연구에서 '텍스트의 의미' 대신 '표현 의도'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어휘 선택'의 특성을 부각하기 위함이다. 필자가 쓰기의 과정에서 선택한 어휘는 필자의 경험적 배경지식을 토대로 한 전경화된 의미 자질이다. 한편 '표현자'라는 용어는 필자와 화자를 아우르는 의미(신명선, 2010: 1)를 따르면서, 문맥에 따라 필자 또는 화자를 사용함을 밝혀둔다.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의 바탕이 된다. 표현자는 텍스트의 내용 구성의 기본 단위인 어휘를 선택할 때 자신의 경험적 배경지식을 동원한다. 따라서 텍스트에는 표현자가 어휘 사용을 통해 의도한 모종의 의미가 구성되어 있기 마련이다.[2] 이러한 어휘 사용을 통해 나타나는 표현 의도는 텍스트 행의 의미와 함께 행간의 의미를 형성하여, 수용자로 하여금 텍스트 의미 해석의 다양성을 열어주는 방편이 된다.

이런 점에서 어휘 교육은 '어휘 사용'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범주화하려는 노력이 강구되어 왔다. 구본관·신명선·서혁·이도영·민병곤·김봉순 외(2014: 89)에서는 어휘 교육의 내용을 '정확한 어휘 사용, 적절한 어휘 사용, 타당한 어휘 사용, 창의적 어휘 사용' 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가운데 '적절한 어휘 사용'은 상황과 사회문화적 맥락에 적절한 어휘 사용을 가리키며, '타당한 어휘 사용'은 맥락적으로 사용된 어휘가 어떤 이념이나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인식 과정을 중시한다. 이 연구는 텍스트를 생산할 때 표현자가 선택한 어휘에 대하여, "과연 그러한 어휘가 왜 사용되었을까?", 더 나아가 "그러한 어휘 사용에 의해 배태된 이념이나 가치는 무엇일까?" 등의 의문을 제기하는 어휘 사용 교육이 구체화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곧 적절한 어휘 사용에 머물고 있는 현행 어휘 교육의 성취기준(교육부, 2015)[3]에 대한 한계를 직시하고, 학습자가 텍스트에 사용된 어휘의 표현 의도를 탐구하여, 어휘에 배태된 세계를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어휘 사용 교육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은 '어휘 교육을 포함하는 문법 영역의 의도 탐

---

2) 이와 관련하여 김병홍(2004: 161)에서는 정치 분야 뉴스라는 구체적인 텍스트에서 의도성이 실현되는 방법으로 '어휘 선택에 의한 어휘적 방법'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3) 2015 교육과정의 어휘 교육에 관한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9국04-05] 어휘의 체계와 양상을 탐구하고 활용한다. / [12언매02-04] 단어의 의미 관계를 탐구하고 적절한 어휘 사용에 활용한다." 어휘 사용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 두 성취기준은 각각 정확한 어휘 사용과 적절한 어휘 사용에 해당한다.

구 관련 연구'와 '어휘 사용에 관한 어휘 교육의 연구' 차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통해 보다 강화된다. 전자의 경우, 주로 체계기능언어학(Halliday, 1994)을 기반으로 삼아 문법의 의미 기능을 탐구하여 텍스트에서 표현 의도를 파악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주세형(2005)는 사태의 의미를 구성하는 문법 지식의 중요성을 주목하여 이른바 '통합적 문법교육'의 설계 원리를 구안하였다. 이후 주로 문법 요소의 내용 범주에서 각각의 의미·기능을 밝히려는 시도가 이어져 왔다(이관희, 2010; 제민경, 2011, 2013 등). 그런데 문장 교육 차원의 의미 있는 연구 성과에 불구하고, 어휘 교육에서 표현 의도를 탐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텍스트의 내용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어휘를 중심으로 기존 연구를 조망하면, 체계기능언어학을 토대로 한 의미·기능의 해명은 '기능어' 중심의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체계기능언어학이 아닌 '인지언어학'[4]을 토대로 삼고, 기능어가 아닌 '내용어'[5]에 초점을 두어, 표현 의도를 탐구하는 어휘 교육의 상을 그려보고자 한다.

후자의 경우, 어휘 사용에 관한 논의는 주로 텍스트 생산 주체의 변인

---

4) 인지언어학 관점의 어휘 교육 연구와 관련하여 이동혁(2009)는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개인의 경험과 사회문화를 통합하는 의미 교육의 방향을 강조하였다. 송현주(2010)은 인지언어학의 동기화 개념을 중심으로 경험적, 생태적, 지각적 동기 등과 같은 다양한 동기에 따른 어휘 교육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삼형·김시정(2014)는 개별 어휘가 개념을 표상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한국어 인지 어휘의 분류 범주를 설정하였다. 이들 논의는 어휘 사용과 언중의 사회문화적 경험을 연계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휘 교육의 내용 체계와 연계성이 약하고, 어휘 사용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텍스트를 어휘 연구에서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 연구는 이를 극복하고자 '표현 의도', '타당한 어휘 사용 교육'을 논의의 핵심어로 설정하였다.

5) 여기에서 사용한 '기능어'와 '내용어'라는 용어는 다음의 진술과 같은 개념역을 지닌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낱말은 '내용어' 부류에 해당하는데,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직관적이고, 탈맥락적이고, 다분히 환기적이다. 개념적으로 생산성이 높고 새로운 결합이 가능하여 창조적이다. (중략) 문맥 속에서 어휘이지만 개념적 의미보다는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박수자, 2006: 183)."

에 따라 사용 어휘에 대한 귀납적 분석이나 질적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김한샘, 2012; 신명선, 2015 등). 국어교육에서는 어휘를 범영역적 화두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어휘 사용에 관한 실천적 교육 내용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교육부, 2015 참고). 이로 인해 타당한 어휘 사용 혹은 창의적 어휘 사용[6]에 관한 논의는 어휘 교육에서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이에 이 연구는 타당한 어휘 사용에 관한 교육적 설계를 표현 의도를 탐구한다는 구체적인 기제를 통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어휘 교육을 의도와 함께 논의하고자 한 이동혁(2013)과 이 연구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이동혁(2013)은 의도가 문법의 형태와 의미를 결합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밝히며, 비유적 의미를 중심으로 한 의미 교육 내용의 구성 가능성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이동혁(2013)은 해당 어휘 교육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교육적 설계의 요소를 포괄적으로 고찰하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표현 의도를 탐구하는 어휘 교육의 설계 요소를 이론과 실천의 층위에서 파악하고자 한다.[7]

요컨대 이 연구는 문법 영역에서 표현 의도를 탐구하는 어휘 교육 논의의 필요성과 타당한 어휘 사용 교육의 체계화에 대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인지언어학을 근간으로 삼아 텍스트에서 표현자가 선택한 어휘에 담긴 의도를 탐구하는 어휘 교육의 이론과 실천의 설계 요소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

6) 이종철(2000)의 창의적 어휘 사용 교육에 관한 논의와 김정우(2011: 205)에서 언급된 '어휘에 의해 환기되는 정서는 물론이거니와 창의적인 언어 사용의 양상' 등을 들 수 있지만, 구체적인 교육적 설계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추후 이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

7) 교육 담론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이론과 실제를 포괄하여 해당 담론을 설계하기 위한 요소를 구체화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어휘 교육의 설계 요소'를 중심 논제로 세운 이유 또한 이러한 사실에 기인한다.

II. ‘표현 의도 탐구’의 실체와 타당한 어휘 사용 교육의 관련성

표현 의도를 탐구하는 어휘 교육의 설계 요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표현 의도를 탐구한다는 것의 실체를 국어교육에서 파악하여 어휘 교육과의 접점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2015 교육과정에서 ‘표현 의도’가 어떤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국어교육에서 표현 의도를 탐구한다는 것의 교육적 주안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표현 의도와 관련된 2015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관련 진술을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표현 의도에 관한 2015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관련 진술

영역	성취기준	표현 의도 관련 진술 (연구자 밑줄)
듣기	[6국01-06] 드러나지 않거나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듣는다.	• 추론하며 듣기를 지도할 때에는 드러나지 않은 화자의 의도나 관점을 생각하며 듣게 하거나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며 듣도록 지도한다(31쪽).
읽기	[9국02-07] 매체에 드러난 다양한 표현 방법과 의도를 평가하며 읽는다.[8]	• 다양한 표현 방법과 의도를 평가하며 읽기를 지도할 때에는 글에 제시된 정보를 파악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9]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한다(60쪽).

8) 다음 10학년 성취기준도 이 성취기준과 계열성을 지닌다. “[10국02-02]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 평가하기를 지도할 때에는 필자의 관점이나 의도가 무엇이며,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 표현하였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예컨대, 신문의 경우는 표제나 기사 본문, 사진 등에서, 광고의 경우는 배경, 이미지, 광고 문구 등에서 필자의 특정 관점이나 의도가 드러나는데, 이를 근거로 관점이나 내용이 편견에 치우치지 않았는지 판단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교육부, 2015: 60).”

9) 표현 방법이란 글에 사용된 어휘나 문장 표현뿐 아니라 도표, 그림, 사진 등과 같은 시각 자료, 동영상 자료를 포함한다(교육부, 2015: 48).

문법	〔12언매02-06〕 문법 요소들의 개념과 표현 효과를 탐구하고 실제 국어생활에 활용한다.	•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사동 표현, 부정 표현, 인용 표현을 모두 세세하게 다룰 필요는 없으며 표현 효과를 탐구하기 좋은 사례를 선택하되, 실제 국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113쪽).

위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표현 의도는 2015 교육과정의 '듣기, 읽기' 영역과 '문법'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

먼저 '듣기, 읽기'의 경우 모두 글이나 담화를 수용하는 과정을 공유한다. 이런 점에서 이들은 위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유사한 내용 요소를 지니고 있다. 곧 텍스트의 내용을 축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추론'하고 '평가'하는 차원이 강조되어 있다. 표현 의도 또한 텍스트에 '드러나지 않는 의도나 관점', '글에 제시된 정보를 넘어서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 판단'과 결부되어 있다. 박수자(2006: 186)에서 지적하였듯이, 텍스트에 대한 추론적 이해의 과정에서 필자는 자신의 의도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장르와 문체를 선택한다는 사실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 비판적 읽기의 경우 필자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 주목할 때(김혜정, 2008: 72), 위 〈표 1〉의 읽기 영역 관련 진술에서 언급된 것처럼 내용과 표현 방법의 적절성 판단이 강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표현 의도 탐구는 다분히 '텍스트의 숨은 의미'를 내용과 표현 차원에서 '추론'하고 '평가'하는 교육적 적용을 유도하고 있다.

이때 한 가지 주목할 수 있는 사실은, 위 〈표 1〉에서 읽기 영역의 경우 '매체 관련 내용'이 표현 의도 탐구와 밀접한 관련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비판적 담화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과 관련하여 매체가 갖는 텍스트 생산과 유통 및 수용의 역동성(Fairclough, 1995; 이원표, 2004: 54)을 주목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곧 사회문화 현상이 즉시적으로 반영되어 다양한 소통의 주체에 의해 텍스트가 변용, 은폐 및 부각되는 일련의 사건을 파악하는 교수-학습을 읽기 영역에서 반영하고 있다. 이는 표현 의도 탐구에 적합한 텍스트가 기사문, 광고 등과 같은 매체 텍스트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암시한다.

다음으로 문법 영역의 경우 '문법 요소'를 주요 내용 요소로 삼고 있는 문장 교육에서 표현 의도와 효과를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0] 특히 문법 요소를 실제 국어생활에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자의 표현 효과를 담지하는 중요한 장치가 된다는 사실을 위 〈표 1〉의 관련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곧 표현 의도를 탐구하는 과정에서는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문법 지식'[11]이 중요한 내용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일련의 논의를 정리하면, 2015 교육과정에 제시된 '표현 의도 탐구'는 '텍스트의 숨은 의미'를 '추론적이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과정과 그 근간의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문법 지식'을 탐구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고 있다.

이를 어휘 교육에 대응하면, 표현 의도 탐구의 어휘 교육은 텍스트의 숨은 의미가 텍스트에 사용된 어휘에 의해서도 구성된다는 사실, 그리고 기능어에 대한 의미·기능 탐구와 함께 내용어에 대한 타당성 탐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로 초점화된다. 전자의 경우 어휘가 텍스트의 숨은 의미, 가령 한 편의 글에서 문단과 문단, 문장과 문장 사이에 존재하는 행간 의미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임은 비교적 자명한 사실이다. 독자가 텍스트 상에서 어휘를 보고 계열적 사고를 하기도 하고, 문장의 연쇄를 따라 서사적 사고를 하기 때

---

10) 문법 영역에서 문법 요소 탐구의 기반이 되는 '문장의 짜임' 역시 표현 의도와의 관련성을 중시하고 있다. 다음 성취기준과 관련 설명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9국04-06] 문장의 짜임과 양상을 탐구하고 활용한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이라도 홑문장으로 쓰느냐 겹문장으로 쓰느냐, 이어진 문장으로 쓰느냐 안은문장으로 쓰느냐에 따라 표현 효과가 달라지는데, 이러한 표현 효과를 탐구하고 표현 의도에 따라 다양한 짜임의 문장을 국어생활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51쪽)."

11) 숙련된 성인 모어 화자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어휘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문법 지식도 전략화하여 사용한다. 같은 상황을 대하더라도 어떤 것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또한 어떤 것을 표현하고 싶은가에 따라 문법 표지가 달리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주세형, 2005: 212).

문이다(박수자, 2006: 183). 곧 문맥은 어휘의 연쇄에 의해 만들어지며, 그 문맥에 의해 행간의 의미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에 텍스트의 내용적 실체인 어휘는 표현자가 만들어내는 의도의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휘 교육에서 표현 의도 탐구의 방향은 무엇보다 기능어 차원이 아닌 내용어 차원에서 '어휘의 의미'를 '타당성'의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설정된다. 사용으로서의 어휘 교육 범주 가운데 하나인 '타당한 어휘 사용을 위한 어휘 교육'은 위에서 정리한 표현 의도 탐구를 위한 내용을 지니고 있다. 어휘 사용 중심의 어휘 교육 내용 유형(신명선, 2011)을 다음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자.[12)]

〔어휘 사용의 관점〕			〔어휘 교육의 내용〕
타당성			왜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어휘를 사용하라고 하는가?, 타당한 어휘 사용인가? －어휘의 유형에 대한 사회적 편견, 국어 순화 발전 방향 등
	적절성		의사소통 상황에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였는가? －어휘 의미의 가치, 사용역에 따른 어휘 등
		정확성	정확한 어휘를 사용하였는가? －단어 개념의 정교성, 단어의 체계 이해 등

〈그림 1〉 어휘 사용 중심의 어휘 교육 내용 유형

위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어휘 사용 중심의 어휘 교육 내용은 정확성, 적절성, 타당성의 관점에 따라 세분화된다. 이들은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터해 적절하고 타당한 어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신명선, 2011: 91). 이때 위 〈그림 1〉에서 언급된 타당한 어휘 사용의 교육 내용

12) 〈그림 1〉은 신명선(2011: 90)에 제시된 도식의 내용과 논리를 따르되, 타당한 어휘 사용 교육에 집중하고자 '창의성의 관점'은 제외하고 도식의 형태를 일부 변용한 것임을 밝혀 둔다.

은 "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곧 적절성 관점에서 다루는 어휘 의미의 가치[13]나 사용역에 따른 어휘 양상 등이 "과연 타당한 쓰임새인가?"와 같이 사용된 어휘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에 따른 근거를 추론하고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위 〈그림 1〉에서 제시된 타당한 어휘 사용에 관한 교육 내용의 예로 제시된 '어휘의 유형에 대한 사회적 편견, 국어 순화의 방향, 국어 발전의 방향' 등은 비판적 사고력이 발휘되는 내용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가령 '어휘의 유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다룬다고 하면, '언중의 어휘 사용 양상'을 살피고 언중이 지닌 사회인지(social cognition)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될 수 있다. 여기서 특정 텍스트에서 특정 어휘에 의해 지배적으로 드러나는 사회인지를 파악하는 작업은 텍스트에 사용된 어휘에 담긴 의도 탐구의 과정을 통해 구체화된다.

결국 타당한 어휘 사용의 교육은 위 〈그림 1〉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왜 특정 맥락에서 그 어휘가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으로 '표현자의 인지와 그가 사용한 어휘의 관련성을 포착하는 연구'가 어휘 교육에 필요함을 말해 준다. 이것은 '어휘'의 개념을 지금과 같이 결과적 어휘론에 근거하여 설정하는 것[14]을 극복하는 일이다. 여기에 인지언어학의 연구 성과가 보다 핍진하게 어휘 교육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그간의 논의가 설득력

---

13) 박재현(2006: 19)에서는 어휘 의미의 가치에 대하여 어휘를 수용하고 산출하는 수행을 전제로, 맥락에 맞는 적절성 차원의 의미의 가치 판단을 중핵으로 하는 지시 능력이 어휘 교육에서 필요하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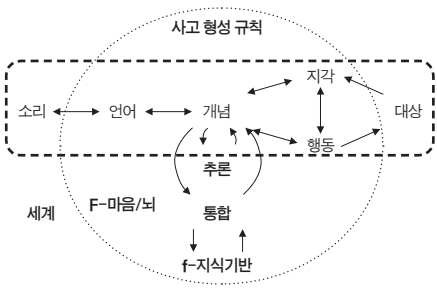
14) 이와 관련하여 현행 어휘 관련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어휘의 체계와 양상을 파악한 다음,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다. "[9국04-05] 어휘의 체계와 양상을 탐구하고 활용한다: 어휘의 체계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와 같은 어종(語種)에 따라 마련될 수 있으며, 어휘의 양상은 지역 방언, 사회 방언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체계나 양상에 따라 어휘의 유형을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담화 상황에 맞는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한다(교육부, 2015: 50-51; 연구자 밑줄)." 위 〈그림 1〉에 대입해서 말하면, 정확성과 적절성의 관점에 어휘 교육 내용이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을 얻는다. 곧 어휘를 표현자가 형상화하고자 하는 세계를 투영하는 첫 번째 인지적 통로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표현된 언어를 표현자의 공유된(shared) 사회인지로 간주하는 데에 기인한다(van Dijk, 2009: 32).

이와 관련하여 이동혁(2013)은 보다 적극적으로 어휘의 의미를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의도와 결부하여 논의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이동혁(2013: 469)에서는 Jackendoff et al.(2002: 272)의 개념화(conceptualization) 과정 도식을 제시하며,[15] 어휘나 문장의 의미 교육이 '개념'을 둘러싼 복합적인 인지 작용을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지 작용은 필자가 사태를 표현할 때에는 자신의 경험적 배경지식을 토대로 해당 사태를 표현하기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이동혁(2013: 472)는 '의도'를 '개념화 결과'와 동일시하고 있다. 그만큼 어휘 교육에서 표현자의 개념화 과정을 교수-학습의 부면에 떠올리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16]

현행 교육과정에서 중시하는 텍스트에 숨겨진 의미를 탐구하는 데 집중하는 표현 의도 탐구의 국어교육 내용은 타당한 어휘 사용의 교육과 연계되

15) 이 도식은 개념을 중심으로 한 접면을 나타낸 것으로 아래와 같이 제시되어 있다(이동혁, 2013: 469).



16) 그런데 현행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표현 의도 탐구가 텍스트의 숨은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의도는 개념화 결과 이상'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텍스트에 표현된 의도는 반드시 필자나 화자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으며, 표현 의도에 따라 선택된 어휘는 보다 복합적인 세계의 모습을 표상하기 때문이다.

어 어휘를 개념화 과정의 기본 단위로 인식하는 인지언어학을 근간으로 체계적인 교육적 상을 설계해 나갈 수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표현 의도를 탐구하는 어휘 교육에 대하여 '이론 요소: 기저 이론과 매개 이론', '실천 요소: 텍스트의 성격과 탐구 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자.

III. 이론 요소: '인지문법' 기반 '틀과 은유' 활용 어휘 교육

인지언어학을 어휘 교육에 도입하면 어휘를 개념화 과정의 기본 단위로 인식하는 것을 전제한다. 이러한 개념화 과정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 여기에서는 인지문법(cognitive grammar)(Langacker, 1987/1998)의 기본 명제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표현 의도 탐구를 위한 어휘 교육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인지문법은 언어의 형태와 의미는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전제로 삼는다(Langacker, 1987/1998: 12). 언어가 인지의 일부라는 점에서 기술된 언어의 구조는 인지 작용의 양상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인지 작용은 심리적 경험을 토대로 한 의미 구성이라는 점에서 문법과 어휘는 태생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직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휘부(lexicon)를 기본 단위로 삼은, 의미에 대한 인지문법의 기본 명제(Langacker, 1987/1991: 49)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의미는 개념화(conceptualization) 즉 심리적 경험으로 환원된다.
㉯ 자주 쓰이는 표현은 전형적으로 서로 관련된 의미들의 망(web)을 보여준다.
㉰ 의미 구조들은 인지 영역들(cognitive domains)에 준하여 특징지어진다.

위의 ㉮에서 볼 수 있듯이 인지문법에서는 언어의 의미를 개념화와 연결한다. 인간의 심리적 경험이 언어에 표상되어 의미화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처럼, 자주 쓰이는 표현 이른바 관습적 표현(conventional expressions)은 심리적 경험에 대한 범주화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표현된 언어가 지닌 의미는 언중이 공유하고 있는 경험의 관계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특정한 범주화 관계에 의해 관습화된 의미 범주들은, ㉰와 같이 언중이 경험으로 지니고 있는 인지 영역에 준하여 특징지어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언어의 의미 근원은 백과사전적 정보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정 맥락에 따라 어떤 정보가 드러나기도 하고 숨겨지기도 한다.

인지문법의 기본 전제는 어휘부(lexicon) 또한 머릿속에 저장된 경험적 사전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어휘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17] 그것은 텍스트를 구성하는 내용적 실체인 어휘의 의미는 표현자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현행 어휘 관련 교육과정 내용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의미 관계'는 표현된 단어 사이의 결과론적 의미 관계가 아니라 언중이 공유하고 있는 인지의 범주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지문법은 어휘 교육이 '사회문화적 환경 – 언중의 공동체적 특징 – 집단의 이념이나 가치'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텍스트에 사용된 어휘의 의미를 탐구하는 교육 담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지한다.

이러한 성격의 어휘 교육은 인지문법의 하위 방법론에 따라 보다 실질적인 교육 내용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 인지문법을 토대로 어휘의 의미를 분석하려는 연구로 틀(frame)과 은유(metaphor)를 들 수 있다.[18]

---

17) 구본관 외(2014: 41-42)는 어휘 교육의 목표인 어휘 능력의 신장이 학습자에게 좋은 어휘부(lexicon)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어휘부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머릿속 사전(mental lexicon)'을 갖고 있다. 이 머릿속 사전에는 어휘가 관계망으로 존재하며, 어휘에 대한 시각·청각·후각 등의 감각 정보와 세계에 대한 인식과 가치 판단도 저장되어 있다(구본관 외, 2014: 52-53).

18) 틀은 틀짓기(framing)를 포함하는 이론이고, 은유는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를 가리킨다.

틀과 은유는 어휘를 통해 세계를 읽어내는 인지의미론의 대표적인 두 가지 연구 담론이다(Fillmore, 1982; Lakoff, 1993; Stibbe, 2015: 64). 이때 이 둘을 함께 논의해야 하는 이유는 틀이 텍스트 내 어휘가 표상하는 주제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고, 은유가 어휘가 표상하는 관계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 〈표 2〉와 같이 어휘 사용에 관한 틀과 은유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2〉 어휘 사용에 관한 틀과 은유의 특성

	틀	은유
어휘 단위	한 단어의 주제적 의미	단어 혹은 구절의 관계적 의미
어휘 표현 원리	방아쇠 단어(trigger word)를 통한 촉발(evoking)	근원 영역(source domain)과 목표 영역(target domain)의 사상(mapping)
인지 작용	전경과 배경의 선택을 통한 개념화 과정에 대한 어휘 표현	

위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틀과 은유는 모두 어휘 사용자의 인지 작용 과정을 어휘로 드러내는 표현 기제이다. 어휘 사용자는 텍스트에서 특정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단어가 갖는 전경과 배경을 고려하여 그 단어를 선택한다. 어휘 사용자의 단어 선택에 따라 전경화된 의미는 텍스트에 부각(highlighting)되고, 반대로 배경화된 의미는 은폐(hiding)된다(Lakoff, 1993: 7-8). 이에 틀과 은유는 어휘적 표현 자체가 개념화 과정이며, 틀과 은유를 탐구하는 것은 곧 어휘 사용자의 개념화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틀'은 텍스트에 중심적으로 사용된 특정 어휘에 의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배적으로 형성되는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개념(concept)이다(Fillmore, 1982: 11). 텍스트에는 여러 주제어(key-word)가 존재하는데, 주제어는 텍

스트 생산자의 정교한 선택에 따른 전경화된 의미를 지닌다. 이에 틀은 텍스트에 사용된 '한 단어'에 주목하여 그 단어가 갖는 주제적 의미를 탐구하는 데 유용하다. 틀 이론에서는 그와 같은 '한 단어'를 '방아쇠 단어(trigger word)'라고 일컫는다. 이 방아쇠 단어는 특정 틀을 촉발(evoking)하여, 텍스트의 의도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Stibbe, 2015: 46-47). 예를 들어, '기후 변화'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텍스트에 '문제(problem)'라는 방아쇠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문제해결(problem-solving)'의 틀이 촉발된다(Brewer & Lakoff, 2008). 이때 방아쇠 단어로부터 촉발된 틀은 사회인지의 일부로 작동하며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구조화되고 재구조화된다(Goffman, 1974: 11-12). 이런 점에서 틀을 통해 어휘 사용의 양상을 살피는 일은 어휘를 통해 세계를 해석하는 것과 같다.

'은유'는 한 종류의 사물을 다른 종류의 사물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경험하는 개념화 과정을 뜻한다(Lakoff & Johnson, 1980: 5). 하나가 아닌 두 사물의 관계성을 따진다는 점에서 어휘 사용과 관련하여 단어와 단어 혹은 구절에 의해 발현되는 관계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이때 한 종류의 사물은 보통 새롭고 추상적이고, 다른 종류의 사물은 보통 익숙하고 구체적이다. 이는 새로운 사실을 생각할 때 나타나는 인간 사고의 방식과 유사하다. 그래서 인간 사고를 공간(space)의 도식으로 바라보면서, 은유는 새롭고 추상적인 목표 영역(target domain)을 친숙하고 구체적인 근원 영역(source domain)으로 사상(mapping)하는 과정으로 정리된다(임지룡, 2013: 25). 예를 들면, '기업은 사람이다'의 은유는 '기업'이라는 단어가 지닌 목표 영역을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도구를 이용하며, 사회를 이루는 유기체의 근원 영역으로 사상하여, '기업의 주체성'을 부각한다. 텍스트에서 은유로 사용된 두 단어의 관계는 이처럼 왜 목표 영역에 특정 근원 영역을 사상했는지에 대한 탐구 과정을 통해,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를 들여다보게 이끈다.

틀과 은유는 상호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교육적 적용을 위해서는 함께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것은 은유의 근원 영역이 친숙하고 구체적인

속성의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그러한 표현에는 보통 일상적인 틀이 동원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Sullivan(2013: 23)은 근원 영역이 일상의 틀에 의해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은유의 사고 과정은 목표 영역을 사상하는 근원 틀(source frame)을 떠올리는 과정과 동일하다고 한 바 있다.[19] 특히 은유의 근원 영역은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는 것과 같은 신체 활동과 관련이 있으며 모호하지 않고 정확한 속성을 지닌 틀을 동원한다(Semino, 2008: 11). 이러한 점에서 은유는 틀짓기(framing)의 한 유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틀과 은유를 어휘 교육에 활용하면, 텍스트에 사용된 어휘가 세계의 어떠한 모습을 배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교육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특히 하나의 텍스트에서 틀과 은유가 빈번히 사용된다는 사실은, 학습자로 하여금 어휘의 타당성을 탐구할 수 있는 역동적인 어휘 교수-학습의 장면을 구현해 낼 수 있다.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어휘 교육의 목표를 조작적으로 설정하는 일이 가능하다.

- 텍스트에 사용된 방아쇠 단어와 은유 표현이 전경화하는 의미를 파악하여, 표현자가 텍스트에 담고자 한 세계의 이념이나 가치를 탐구할 수 있다.

위의 어휘 교육 목표는 앞서 살펴본 틀과 은유 각각의 분석 과정을 교수학적으로 변환해야 할 것이다. 틀의 경우 틀 요소에서 부각된 것을 탐구하는 과정을 명시해야 하고, 은유의 경우 사상 관계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위의 어휘 교육 목표는 표현 의도 탐구를 위한 과정을 틀과 은유의 분석 원리를 통해 구체화하는 길을 열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러한 목표는 타당한 어휘 사용 교육이 지향하는 '어휘를 통

19) 은유에서 목표 영역은 텍스트의 표면에 노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 목표 영역이 개념화의 대상이라면, 근원 영역은 어휘의 구조에 의지해 온 영역이기 때문이다(Stibbe, 2015: 65-66). 근원 영역에 사용된 어휘의 틀을 떠올리는 작업이 어휘 교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 언어인식(구본관, 2011: 32)'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임을 짐작하게 한다.

IV. 실천 요소: '인지 중심적 텍스트'와 '어휘 타당성 탐구 활동'

국어교육의 실행 현상은 교재를 매개로 한 교사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정혜승, 2002: 215-216). 특히 국어과 교재에서는 이론적 내용을 실제 교수-학습 장면으로 변환하는 언어 자료와 이를 통한 학습 활동이 중핵적이다. 다시 말해 특정 국어과 내용을 교수-학습의 과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맞는 텍스트 개념화와 활동 구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표현 의도를 탐구하는 어휘 교육에서 텍스트는 인지적 관점에서 그 개념을 살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활동은 틀과 은유를 활용하여 텍스트에 사용된 어휘의 타당성을 탐구할 수 있는 학습자의 수행 단계가 제시되어야 한다. 왜 그러한지 텍스트의 인지 중심적 개념을 파악해 보고, 이를 토대로 구성 가능한 텍스트의 어휘 타당성 탐구 활동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인지적 관점에서 텍스트를 바라보면, 텍스트는 심리에 기반을 둔 현상 곧 정신과정의 산출물로 간주된다(Heinemann & Viehweger, 1991/2001: 86). 인지적 관점의 텍스트는 텍스트를 의사소통의 과정 속에서 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 기능(communicative skills)을 중심에 둔 텍스트의 관점과 교집합을 지니고 있지만, 의사소통 참여자의 의도와 효용을 특히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능 중심적 텍스트'와 '인지 중심적 텍스트'를 다음 〈표 3〉과 같이 비교해 보고자 한다.

〈표 3〉 기능 중심적 텍스트와 인지 중심적 텍스트의 비교

	기능 중심적 텍스트	인지 중심적 텍스트
명제	"텍스트는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하는 언어 의사소통 행위이다."	"텍스트는 의사소통 참여자의 정신 및 인지 활동의 결과물이다."
개념	발화의 목적을 고려한 발화 행위(수반 및 효과)의 총체	표현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표현자의 선택적 심리 과정의 산물
이론	화용론, 언어행위 이론	인지심리학, 인지언어학

위 〈표 3〉을 보면 인지 중심적 텍스트는 기능 중심적 텍스트에 비해 '텍스트 생산자의 경험'이 중시되고, 텍스트를 '표현자의 선택적 심리 과정'의 산물로 여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두 관점의 텍스트 개념이 지향하는 바는 같지만, 인지 중심적 텍스트가 텍스트 참여자의 심리 작용과 그 진행 단계에 보다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화용론이나 언어행위 이론에서 강조하는 발화 행위가 갖는 의사소통 목적과 기능에 대하여, '왜' 그렇게 해석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는 인지심리학이나 인지언어학이 관련 이론으로 자리매김한다.

이에 인지 중심적 텍스트는 Beaugrande & Dressler(1981: 41)에서 언급하였다시피, '계획, 착상, 전개, 표현, 문법적 종합'이라는 인지적 과정에 의해 산출된다(Heinemann & Viehweger, 1991/2001: 97-98). 산출된 텍스트가 지녀야 하는 '텍스트성(textuality)'이 결과물로서 텍스트가 형성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인지적 과정으로 조명해야 하는 심리적 조건이라는 지적이 여기에 기인한다. 가령 텍스트성의 하나인 '의도성'이 '지식을 전파하거나 어떤 계획에 제시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응결성과 응집성을 지닌 텍스트를 만들려고 하는 텍스트 생산자의 마음 자세(attitude)를 가리킨다(Heinemann & Viehweger, 1991/2001: 99).

국어교육에서 이러한 인지적 텍스트의 개념이 안착될 수 있다면, 교육과정 상에 제시된 '논설문, 건의문, 설명문, 보고서, 기사문' 등(교육부, 2015:

56)과 같은 텍스트 유형에서 표현 의도를 탐구하는 과정을 어휘 교육에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텍스트에서 현행 교육과정상 언급된 표현 의도 탐구를 위한 문장 교육과 이 연구에서 논의하는 어휘 교육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다.

- 텍스트: 프랑스 르노그룹 본사는 8일을 협상 최종 시한으로 못 박은 바 있다. (아시아경제, 2019. 3. 8)
- 활동: ① 필자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임에도 '-ㄴ 바 있다'의 시간 표현을 왜 사용했을까? [문법 요소] ② '못 박은 바 있다'에서 '못'의 비유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휘 사용]

위에서 예로 든 텍스트와 활동을 간략히 설명하면, 활동 ①은 문법 요소에서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을 대신하여 현재형의 '-ㄴ 바 있다'를 사용한 필자의 의도를 탐구하도록 유도한다.[20] 여기에 더해 활동 ②는 그 초점을 해당 표현의 어휘에 둔다. 곧 '못'의 비유를 사용한 이유를 학습자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파악하게 한다. 곧 해당 단어의 다양한 의미를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추적하도록 유도한다. 결과적으로 '못'의 비유를 사용한 이유는 동작주(프랑스 르노그룹 본사)의 강한 의지를 필자가 드러내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21] 그래서 ①과 ②를 합하면, 필자는 동작주가 이미 과거에 협상 시한을 결정했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해당 사건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려된다는 의도를 표명하고 있다.

일련의 인지 중심적 텍스트에 대한 개념과 활용 가능성을 토대로, 틀과

---

20) 제민경(2013: 201-202)에서는 Langacker(1987/1998)의 무대 모형(stage model)을 바탕으로 '-ㄴ 바 있다'를 선택하는 화자는 사건의 무대 밖에 위치하며 사건을 객관화하면서도 실은 주관적 정보 배치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21) 한편 '못(을) 박다'는 관용구인데, 관용구 내의 비유적 표현 역시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은유를 활용한 어휘 타당성 탐구의 활동을 구안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경제 민주화 3법'을 다루고 있는 기사문을 대상으로 삼고, 틀과 은유를 활용하여 기사문의 숨은 의미를 추론적으로 이해하여 궁극적으로 표현 의도를 파악하는 학습자 활동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22)]

〔표제〕 금융 관련 경제민주화 3법, 봄날 아지랑이로
〔전문〕 금융그룹통합감독, 지배구조법 여당도 중점추진법안에서 제외,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진전 더뎌
〔본문〕 국회 정무위원회가 3~4월 내내 공전하면서 금융 분야 경제민주화법이 20대 국회의 관심사 밖으로 아예 밀려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특히 여당 지도부가 금융 관련 경제민주화 입법 일부를 내부적으로 중점추진법안 과제에서 제외하는 등 동력을 잃어가는 모양이다. (하략)
—한겨레신문, 2019년 4월 22일

1. '표제'를 통해 기사문의 화제(topic) 확인하기	
2-A. '전문'과 '본문'을 통해 기사문의 화제에 관한 방아쇠 단어 찾기	2-B. '표제'의 화제에 대한 은유 표현의 의미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3-A. 방아쇠 단어가 촉발하는 틀이 부각하는 의미에 대하여 파악하기	3-B. 화제에 어떤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 은유 표현을 사용했는지 생각하기
4. 중심 단어의 틀과 화제에 대한 은유 표현을 바탕으로 필자의 의도 추론하기	

위의 텍스트는 '금융 관련 경제민주화 3법'에 관한 화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듯 첫 번째 활동을 통해 기사문의 기본 화제를 파악하는 읽기의 과정을 거친다. 틀과 은유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활동 2'와 '활동 3'인데, 이들은 A와 B의 단계를 거치면서 어휘 사용의 개념화 과정을 탐구하도록 유도한다.

'A'는 틀 이론을 적용한 것으로 '방아쇠 단어, 촉발된 틀, 부각된 의미'를 탐구하는 데 집중한다. 'B'는 개념적 은유를 적용한 것으로 '목표 영역에 사상된 근원 영역', '근원 영역을 통해 부각된 의미'를 탐구하도록 유도한다. 위

22) 이와 관련하여 경제 분야 기사문의 은유 표현에 대한 해석적 연구 성과에 해당하는 심지연(2016), 임혜원(2018) 등을 참고하였다.

텍스트에서 밑줄 친 부분을 참고하여 예상 답안을 가정해 본다면, ‘A’는 ‘여당(혹은 여당 지도부)’를 통해 ‘여당 지도부의 책임이 있다’는 의미를 부각한다. ‘B’는 ‘봄날 아지랑이’를 통해 ‘경제민주화 3법’이 ‘금방 사라질 우려가 있다’는 의미를 부각한다.

이를 종합한 ‘활동 4’는 기사문에 담긴 표현 의도를 파악해 보는 것이다. 위에서 해석한 내용을 토대로 보면, 텍스트의 필자는 ‘경제민주화 3법 추진이 중요한데, 이것이 여당 지도부의 소홀로 인해, 추진력이 금세 사라질 우려가 크다’와 같이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음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23)]

V. 연구의 요약과 한계

이 연구는 표현 의도를 탐구하는 어휘 교육의 설계 요소를 탐색하는 작업이었다. 어휘 교육의 범주화 유형 가운데 타당한 어휘 사용 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기초 논의의 성격을 지닌다. 이를 위해 먼저 ‘표현 의도 탐구’가 무엇인지 국어과 교육과정의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교육적 중점을 파악하였다. 표현 의도 탐구는 텍스트의 숨은 의미를 추론하고 평가하는 과정과 그 근간을 이루는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문법 지식을 중시하고 있다. 타당한 어

23) 이러한 추론 과정이 ‘어휘 사용에 대한 해석 없이’ 이루어진다고 보거나, 그저 고급 독자를 위한 ‘읽기 영역’의 과제라고 하는 것은 문법교육 무용론의 입장일 뿐이다(Goodman, 1987: 173-174). 오히려 읽기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어휘 사용에 대한 중층적 의미 해석을 포착해야 하며, 일련의 해석 과정에 대하여 단계별로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전통 문법이 아닌 기능 문법과 인지문법의 학문적 정체성을 국어교육에서 공고히 하는 것이다. 국어 활동의 기저 지식으로서 문법 영역이 지니는 본질적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휘 사용 교육은 이러한 표현 의도 탐구의 주안점에 더하여, 텍스트에 사용된 어휘를 통해 표현자가 담아내고자 한 세계를 어떻게, 왜 그렇게 반영하는지에 대해 탐구하는 교육 방안을 열어준다.

이러한 어휘 교육을 설계하기 위하여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이론과 실천 요소를 각각 탐색하였다. 이론 요소로 '인지문법'을 기반으로 '틀과 은유'를 활용한 어휘 교육의 방향을 확인하였다. 인지문법은 어휘를 개념화 과정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기저 이론이고, 틀과 은유는 타당한 어휘 사용 교육의 실질적 수행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매개 이론이다. 특히 틀과 은유는 모두 표현자가 전경과 배경의 선택을 통한 개념화 과정에 대한 어휘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론적 기제를 지니고 있다. 실천 요소로 '인지 중심적 텍스트'를 도입하고 '어휘 타당성 탐구 활동'을 구안하였다. 구체적으로 기능적 관점과 인지적 관점의 텍스트 개념을 비교하고 텍스트를 인지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예를 제시하였다. 이를 전제로 앞서 논의했던 틀과 은유를 학습자의 수행 단계로 활용하여, 기사문에 대한 어휘 타당성 탐구 활동을 구안하였다.

일련의 논의는 어휘 교육에서 어휘 사용을 강조하여 텍스트에 사용된 어휘를 통해 학습자가 어휘에 배태된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어휘 교육의 방향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지금까지 연구 담론과 교육과정 담론에서 비교적 활발히 논의되어 온 정확한 어휘 사용과 적절한 어휘 사용을 넘어서, 타당한 어휘 사용을 위해 표현 의도를 전면에 내세워 인지언어학 관점의 연구 성과를 이론과 실제에 걸쳐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연구는 어휘 사용 교육의 입장에서 출발점 논의에 머물고 있다. 아직 타당한 어휘 사용 교육의 내용 요소를 제안하지 못하였고, 실천 요소에 대한 환원적 실행을 도모하지 못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연구 한계를 직시하고 이를 보완하는 후속연구를 기약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가 틀과 은유를 도입한 활동 구안을 목표로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비록 기저 이론으로서 인지문법을 제시하고, 실천 요소로 텍스트의 인지적 개념을 언급하였음에도 틀과 은유가 이 연구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추후 인지문법에서 어휘부 이론(lexicon theory)과 텍스트의 인지적 재개념화를 각각 깊이 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비록 국어교육의 인접 학문에 대한 학제성(박인기, 2005: 107)을 확보하고자 매개 이론으로서 틀과 은유가 지닌 어휘 교육적 전이 가능성을 강조하였지만, 추후 이들을 둘러싼 학문 생태에 대한 연구를 포섭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아직 표현 의도 탐구를 위한 어휘 교육의 내용 요소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 표현 의도를 탐구하는 어휘 교육이 타당한 어휘 사용의 교육적 체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 요소에 대한 정련화가 필수적이다. 이 연구에서 탐색한 교육적 설계 요소를 바탕으로 삼아, 추후 교육과정 성취기준 수준의 내용 요소를 마련하는 시도를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이 연구에서 집중한 틀과 은유를 활용한 어휘 분석 원리와 사례를 학습자의 탐구 과정으로 전이하여 어휘 교육의 수행적 내용을 마련하는 작업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행 교육과정 담론에서 명시되지 않은 비판적 어휘 인식력을 함양할 수 있는 어휘 교육의 내용을 생성해 갈 것이다.

* 본 논문은 2019.7.31. 투고되었으며, 2019.8.12. 심사가 시작되어 2019.9.12.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교육부(2015),『국어과 교육과정(제2015-74호 [별책 5])』, 세종: 교육부

구본관(2011),「어휘 교육의 목표와 의의」,『국어교육학연구』40, 27-59.

구본관·신명선·서혁·이도영·민병곤·김봉순·원진숙·이관규·김정우·이경화·전은주·김창원·강보선·권순희·송영빈·박동열·신동광·김호정·김중신·조형일·이기연(2014),『어휘 교육론』, 서울: 사회평론.

김병홍(2004),「텔레비전 정치 뉴스 텍스트의 의도성 분석」,『한글』264, 153-178.

김정우(2011),「문학 교육과 어휘 교육」,『국어교육학연구』40, 187-215.

김한샘(2012),「어휘 교육을 위한 사용 어휘 분석 연구—초등학생 작문 어휘 조사를 기반으로」,『겨레어문학』48, 493-516.

김혜정(2008),「비판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읽기 지도 방향」,『독서연구』20, 47-81.

박수자(2006),「추론적 읽기 지도의 내용 연구」,『국어교육』120, 169-200.

박인기(2005),「국어교육학 연구의 방향: 재개념화 그리고 가로지르기」,『국어교육학연구』22, 97-123.

박재현(2006),「어휘 교육 내용 체계화를 위한 어휘 의미의 가치 교육 연구」,『새국어교육』74, 5-24.

송현주(2010),「동기화를 고려한 어휘 교육」,『어문학교육』41, 7-32.

신명선(2010),「어휘 선택과 표현의 효과—상하위어를 중심으로」,『작문연구』10, 137-168.

신명선(2011),「국어과 어휘 교육 내용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국어교육학연구』40, 61-101.

신명선(2015),「귀국 학생의 어휘 사용 양상과 교육—동사를 중심으로」,『국어교육학연구』50(4), 144-180.

심지연(2016),「경제 텍스트에 나타난 은유의 인지의미론적 연구」,『한국어 의미학』51, 111-136.

이관희(2010),「문법으로 텍스트 읽기의 가능성 탐색—신문 텍스트에 쓰인 '-도록 하-'와 '-게 하-'를 중심으로」,『국어교육연구』25, 119-161.

이동혁(2009),「의미 교육 개선을 위한 인지언어학의 함의」,『우리말글』46, 43-66.

이동혁(2013),「의미 교육 내용의 개선 방안—'의도'와 관련하여」,『어문론집』56, 459-484.

이삼형·김시정(2014),「한국어 인지 어휘 분석 연구」,『국어교육』147, 75-107.

이종철(2000),「창의적인 어휘 사용 능력의 신장 방안」,『국어교육』102, 155-179.

임지룡(2013),「문법 교육의 인지언어학적 탐색」,『국어교육학연구』46, 5-44.

임혜원(2018),「가상화폐의 은유적 개념화 양상」,『한국어 의미학』62, 1-26.

정혜승(2002),「국어과 교육과정 실행 요인 분석—교과서 요인을 중심으로」,『국어교육』108, 209-248.

제민경(2011),「텍스트 중심 문법교육의 방향 탐색—신문 텍스트의 '전망이다' 구문을 중심으로」,『국어교육』134, 155-181.

제민경(2013),「텍스트의 장르성과 시간 표현 교육—신문 텍스트의 '-었었-'과 '-ㄴ 바 있-'의 선택을 중심으로」,『텍스트언어학』34, 179-206.

주세형(2005),「통합적 문법 교육 내용 설계—'의미를 구성하는 문법 지식'을 중심으로」,『이중언어학』27, 203-226.

Brewer, J. & Lakoff, G. (2008), "Comparing climate proposals: A case study in cognitive policy"(Procedings), *The Rockridge Institute*.

De Beaugrande, R. & Dressler, W. U. (1981),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don: Routledge.

Fairclough, N. (2004),『대중매체 담화 분석』, 이원표(역), 서울: 한국문화사(원서출판 1995).

Fillmore, C. (1982), "Frame semantics", In The linguistics of society of Korea(eds.),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Seoul: Hanshin Publishing.

Goffman, E.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New York, NY: Harper & Row.

Goodman, K. S. (1987), *Language and thinking in school: A whole-language curriculum*, New York, NY: Richard C. Owen Publishers.

Halliday, M.A.K. (1994),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2nd Ed.), London: Edward Arnold.

Heinemann, W. & Viehweger, D. (2001),『텍스트언어학 입문』, 백설자(역), 서울: 역락(원서출판 1991).

Jackendoff, R. & Jackendoff, R. S. (2002), *Foundation of language: Brain, meaning, grammar, evolution*,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Lakoff, G. (1993), "The contemporary theory of metaphor", *UC Berkeley Previously Published Works*. 1-47.

Lakoff, G., & Johnson, M.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angacker, R. W. (1991),『인지문법』, 이기동·김종도(역), 서울: 한신문화사(원서출판 1987).

Langacker, R. W. (1998),『인지문법의 토대』, 김종도(역), 서울: 박이정(원서출판 1987).

Semino, E. (2008), *Metaphor in discour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tibbe, A. (2015), *Ecolinguistics: Language, ecology and the stories we live by*, London: Routledge.

Sullivan, K. (2013), *Frames and constructions in metaphoric language*, Amsterdam: John Benjamins.

van Dijk, T. A. (2009), *Society and discourse: How social contexts influence text and talk*,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초록

표현 의도를 탐구하는 어휘 교육의 설계 요소 탐색
—타당한 어휘 사용 교육의 체계화를 위하여

김규훈

이 연구는 표현 의도를 탐구하는 어휘 교육의 설계 요소를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어휘 교육의 범주화 유형 가운데 타당한 어휘 사용 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기초 논의의 성격을 지닌다. 이를 위해 우선 '표현 의도 탐구'가 무엇인지 국어과 교육과정의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교육적 중점을 파악한다. 타당한 어휘 사용 교육은 텍스트에 사용된 어휘를 통하여 표현자가 담아내고자 한 세계를 어떻게, 왜 그렇게 반영하는지에 대해 탐구하는 교육 방안을 열어준다. 이러한 어휘 교육을 설계하기 위하여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이론과 실천 요소를 탐색한다. 이론 요소로 '인지문법'을 기반으로 '틀과 은유'를 활용한 어휘 교육의 방향을 확인한다. 인지문법은 어휘를 개념화 과정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기저 이론이다. 매개 이론으로서 틀과 은유는 표현자가 전경과 배경의 선택을 통한 개념화 과정에 대한 어휘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론적 기제를 지니고 있다. 실천 요소로 '인지 중심적 텍스트'를 도입하고 '어휘 타당성 탐구 활동'을 구안한다. 텍스트의 개념을 인지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접근의 실제를 확인한다. 이를 전제로 틀과 은유를 학습자의 수행 단계로 활용하여, 기사문에 대한 어휘 타당성 탐구 활동의 실제를 제안한다.

핵심어 어휘 교육, 어휘 사용, 타당한 어휘 사용, 표현 의도, 추론과 평가, 인지언어학, 틀, 은유, 인지적 텍스트, 어휘 타당성 탐구 활동

ABSTRACT

Exploring the Design Elements of Vocabulary Education to Investigate Expressional Intentions

—For systematizing valid vocabulary using education

Kim Kyooh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esign elements of vocabulary education to investigate expressional intentions. It has a meaning of a basic research for systematizing valid vocabulary using education.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study adopts an educational approach focused on the investigation of expressional intentions by examining the Korean subject curriculum. Valid vocabulary education can broaden educational outcomes by clarifying how and why words in a text can depict the world the expresser wants to draw. Thus, this study explore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elements necessary for vocabulary education design from the perspective of cognitive linguistics. As for the theoretical elements, this study verifies a vocabulary teaching strategy using the frame and metaphor approach based on cognitive grammar. Cognitive grammar is a fundamental theory for understanding vocabulary as a process of conceptualization. On the other hand, as a mediation theory, the frame and metaphor approach provides a methodological mechanism that can lead the expresser to use vocabulary in a conceptualization process by choosing vocabulary foregrounds and backgrounds. Regarding the practical elements, this study focuses on the cognitive aspect of texts and investigates vocabulary validity. The concept of text is established from a cognitive perspective and verified by an approaching example, while the investigation of vocabulary validity comprises the application of the frame and metaphor approach to the learners' performing steps in the analysis of a news story.

KEYWORDS Vocabulary Education, Vocabulary Use, Valid Vocabulary Use, Expressional Intentions, Inference and Appraisal, Cognitive Linguistics, Frame, Metaphor, Cognitive Text, Vocabulary Validity Inquiring Activity